

蘆溪歌 (노계가)

朴仁老(박인로)

白首(백수)에 訪水 尋山(방수심산)
太晚(태면)흔 줄 알것마는
平生 素志(평생 소지)를 뵈고야 말라 너거
赤鼠(적서)¹⁾ 三春(삼춘)에 春服(춘복)을 새로 입고
竹杖芒鞋(죽장망혜)로 蘆溪(노계) 깎흔 골이
형혀 마참 차즈오니
第一江山(제일강산)이 넘지 업시 브려느다
告往今來(고왕금래)에
幽人 處士(유인처사)들이 만히도 잇것마는
天慳 地秘(천간 지비)²⁾햐
느를 주랴 남겼섯다
躊躇 良久(주저 양구)타가
夕陽(석양)이 거윈 적의
陟彼 高岡(척피 거강)³⁾햐 四隅(사우)로 도라보니
玄武 朱雀(현무 주작)⁴⁾과 左右 龍虎(좌우 용호)⁵⁾도
그린듯시 ㄱ꺾고야
山脈(산맥) 밋친 아리
藏風 向陽(장풍 향양)⁶⁾흔디
靑蘿(청라)를 허리 드러 數椽 蝸室(수연 와실)⁷⁾을
背山臨流(배산임수)햐
五柳邊(오류변)⁸⁾에 디여 두고
斷岸千尺(단애천척)이 거던 龍(용)이 머무는듯
江頭(강두)에 돌것거늘 草草亭(초초정) 흔두 間(간)을
구름 썬 긴 술아리 바회 디켜 여러니니
天態萬狀(천태만상)이 아마도 奇異(기이)코야
峯巒(봉만)은 秀麗(수려)햐 富春山(부춘산)⁹⁾이 되야 잇고
流水(유수)는 盤回(반회)햐 七里灘(칠리탄)¹⁰⁾이 되야거든

흰 머리에 물을 찾고 산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줄 알지마는
평생에 품은 뜻을 이루고야 말겠노라
병자년 삼월 봄에 봄옷을 새로 입고
대지팡이 짚신 신고 노계의 깊은 골에
행여 마침 찾아오니
제일강산이 임자 없이 버려졌네.
예로부터 지금까지
숨어사는 선비들이 많이도 있었지는
하늘이 숨겨두고 땅이 감추었으니
내게 주려 남겼구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머물다가
저녁놀이 다해갈 때
저 높은 언덕 올라 사방을 돌아보니
산줄기는 현무 주작, 산세는 청룡 백호
그림처럼 갖추었네.
산줄기 이어지다 뿔뿔이 나뉘는 아래에다
바람을 가둬두고 햇빛을 향한 곳에
푸른 덩굴 걸어내고 두어 서까래 작은 집을
뒤에는 산을 두고 앞에는 물을 안아
다섯 버들 늘어진 물가에 지었으며,
깎아지른 천 길 절벽에 날던 용이 머무는 듯
강나루를 두른 곳에 초초정 한 두 칸을
구름 뿔 긴 술 아래 바위 기대 지어내니
천만 가지 모습들이 아마도 기이하네.
산봉우리 아름다워 부춘산이 되었거나
물을 돌아 빙빙 흘러 칠리탄이 되었구나.

1) 병자년, 1636년

2) 하늘이 숨겨 놓고, 땅이 감추어 둠.

3) 높은 언덕에 오름.

4) 현무는 북쪽을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거북과 뱀이 뭉친 모습. 주작은 남쪽을 지키는 신령으로 붉은 봉황의 모습

5) 용(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신령으로 용의 모습. 호(백호)는 서쪽을 지키는 신령으로 호랑이의 모습.

6) 바람을 갈무리하고 햇볕드는 쪽으로 향함.

7) 두어 서까래를 이은 달팽이 껍질만한 작은 집.

8) 중국 진나라 도연명이 귀거래 했을 때 고향집에서 맞아주던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

9) 후한 광무제 때 엄광이 낚시하며 숨어 살던 곳

十里明沙(십리명사)는 三月(삼월)눈이 되었는데
 이 湖山形勝(호산형승)은 견줄데 되야 업네
 巢許(소허)¹¹⁾도 아닌 몸애 어니 絶義(절의) 알리마는
 偶然時來(우연시래)에 이 名區(명구) 임직되어
 靑山流水(청산유수)와 明月淸風(명월청풍)도
 말업시 절로절로
 어즈러운 鷗鷺(구로)와
 數(수)업슨 鹿(록)도 갑업시 절로절로
 沮溺(저익)¹²⁾ 가던 묵은 밭과
 嚴子陵(엄자릉)¹³⁾의 臺(대)도 갑업시 절로절로
 山中百物(신중백물)이 다 절로 己物(기물)되니
 子陵(자릉)이 돌이요 沮溺(저익)이 서히로다
 어즈버 이 몸이 아마도 怪異(기이)코야
 入山當年(입산당년)에 隱君子(은군자) 되얏는가
 千古芳名(천고방명)을 이 혼 몸애 傳(전)토코야
 人間(인간)의 일홈이 人力(인력)으로 일월소나
 山川(산천)이 靈異(영이)하야 도아닌가 너기로라
 中心(중심)이 瑩然(형연)하야 世廬(세려) 절로 그쳐디니
 光風霽月(광풍제월)¹⁴⁾이 腔子裏(강자리)¹⁵⁾에 품었는듯
 浩然眞趣(호연진취) 날로 새롭호노왜라
 飛禽走獸(비금주수)¹⁶⁾는 六畜(육축)¹⁷⁾이 되얏거늘
 달 알이 괴기낙고 구름 속의 밧홀 가라
 먹고 굶나마도 그칠 적은 업느왜라
 無盡(무진)한 江山(강산)과 許多(허다)한 閑田(한전)은
 分給子孫(분급자손) 하려이와
 明月淸風(명월청풍)은 논호류기 어려울식
 才與 不才(재여부재)에
 養志(양지)호는 아들 혼아
 太白(태백) 淵明(연명) 證筆(증필)¹⁸⁾에
 永永 別給(영영별급) 하렷로라
 내의 이 말이 迂濶(우활)호는 듯 호것마는
 爲子 孫計(위자 손계)는 다만인가 너기로다

십리길 모래밭은 눈처럼 흰 빛인데
 이 호수와 산의 빼어남을 어디에 견주겠나.
 소부 허유 아닌 내가 어이 절의 알 리마는
 우연히 때가 와서 이름난 이곳 임자 되어
 푸른 산, 흐르는 물, 밝은 달, 맑은 바람
 말없이 절로절로
 어지럽게 날아가는 갈매기와 해오라기
 수 많은 사슴들도 값없이 절로절로
 장저와 걸닉이 김매던 묵은 밭과
 엄자릉이 낚시하던 낚시터도 절로절로
 산중의 모든 경치 다 절로 내 것 되니
 자릉이 돌이요, 저익이 셋이로다.
 어즈버 이 몸이 아마도 기이하여
 올해 산에 들었는데 숨은 군자 되었는가.
 아름다운 옛 이름이 이 한 몸에 전했구나.
 인간의 이 이름을 인력으로 이를 소냐.
 산천이 영험하여 도왔는 줄 여기노라.
 마음속이 환해지며 세상 근심 그쳤으니
 맑은 바람 밝은 달을 마음속에 품었는 듯
 넓고도 참된 맛은 나날이 새로워라.
 날짐승 길짐승은 가축이 되었거늘
 달 아래서 고기 낚고 구름 속에 밧을 갈아
 먹고 나서 안 남지도 그만두지 않으리라.
 다함없는 강산과 널려있는 묵은 밭은
 자손에게 나누어 물려 주려니와
 밝은 달 맑은 바람 나눠주기 어려우니
 재주가 있던지 재주가 없던지
 부모 뜻 받들어 섬기는 아들 하나
 이태백 도연명의 이름난 글귀에다
 길이길이 따로 떼어 나누어 주리로다.
 이러한 나의 말이 어리석다 하겠지만
 자손 위한 계책에는 다만 이 뿐이라.

10) 부춘산에 흐르는 긴 여울

11) 소부와 허유

12) 춘추시대 은자인 장저와 걸닉

13) 엄광

14) 비 온 뒤에 맑게 부는 바람과 맑은 달

15) 마음속

16) 날아다니는 새들과 기어 다니는 짐승들

17)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가축. 소, 말, 양, 돼지, 개, 닭.

18)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증인과 이것을 직접 쓴 사람.

또 어린 이 몸은 仁者(인자)도 아니요
 智者(지자)도 아니로되
 山水(산수)에 癖(벽)이러 늘글수록 더욱하니
 기 貴(귀)호 三公(삼공)¹⁹⁾과 이 江山(강산)을 밧골소나
 어리 미친 이 말을 우으리도 하렷마는
 아쁘리 우어도 나는 도허 너기노라
 흐믈며 明時(명시)에 브린 몸이
 흐을 날이 아조업서
 世間 名利(세간 명리)란 쓴 구름 본덧호고
 無思 無慮(무사 무려)호야 物外心(물외심)만 품고 이서
 이니 生涯(생애)을 山水間(산수간)의 붙두고
 春日(춘일)이 채 긴 제 낙딴를 비기쥐고
 葛巾 布衣(갈건 포의)로 釣臺(조대)에 건너오니
 山雨(산우)는 잠깐 개고 太陽(태양)이 썩오느디
 물근 바람 더디오니 鏡面(경면)이 더욱 발다
 김흔 돌이 다 보이니 괴기 數(수)를 알리로다
 괴기도 나치 이거 놀닐 줄 모르거든
 차마 엇디 낙글넌고
 罷釣徘徊(차조 배회)²⁰⁾호며 波心(파심)을 구어보니
 雲影 天光(운연 천광)은 얼희여 줌겨느디
 魚躍于淵(어약우연)²¹⁾을 구름 우히 보아고야
 하 문득 驚恠(경괴)호야 俯察 仰觀(부찰 양관)²²⁾호니
 上下天(상하천)이 宛然(완연)호다
 一陣 東風(일진 동풍)에
 괴엇진 漁笛(어적)이 눅히 부러 보넌던고
 江天(강천)이 寥寂(요적)호디 반가와도 들리느다
 臨風 倚杖(임풍 의장)호야
 左右(좌우)로 도라보니
 臺中淸景(대중청경)이 아마도 蕭灑(소쇄)코야
 물도 하늘갓고 하늘도 물갓호니
 碧水長天(벽수장천)은 흐빋티 되얏거든
 물가에 白鷗(백구)는 오는듯 가는듯
 그칠 줄을 모르느다
 巖畔 山花(암반 산화)는 錦繡屏(금수병)이 되야 잇고
 澗邊 垂楊(간변 수양)은 草綠帳(초록장)이 되야거든
 良辰 佳景(양진 가경)을 내 혼자 거느리고

어리석은 이 몸은 어진 이도 아니요,
 슬기롭지도 아니하니
 자연을 좋아함이 늙을수록 더해지니
 저 귀한 삼공과 이 강산을 바꾸겠나.
 어리석은 이 말을 비웃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웃어도 나는 좋게 여기노라.
 하물며 평안한 세상에서 버려진 몸
 할 일이 아주 없어
 세상의 명예 이익 뜬 구름 본 듯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만을 생각하니
 이내 생애를 산수 간에 붙여 두고
 봄날이 채 길 제 낙싯대를 비껴 쥐고
 갈건 쓰고 베옷입고 낚시터로 건너오니
 산에 온 비 잠깐 개어 햇별이 뜨거운데
 맑은 바람 더디 오니 물결이 거울이라.
 깊은 돌도 다 보이니 고기 수를 알 리로다.
 고기도 낚이 익어 놀랄 줄 모르니
 차마 어이 낚을런가.
 이리저리 거닐면서 물결을 굽어보니
 구름 그림자 하늘빛이 어리어 잠겼는데
 물고기가 뛰는 모양 구름 위에 보이기에.
 문득 놀랍고 괴상하여 굽어보고 살펴보니
 위아래 하늘이 모두 다 뚜렷하다.
 한 줄기 동풍에다
 어찌하여 어부 피리 높이 불어 보내는가.
 강과 하늘 고요하니 반갑게도 들리누나.
 바람을 맞으며 지팡이에 의지하여
 좌우를 돌아보니
 낚시터의 좋은 경치 너무도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 큰 하늘은 한 빛이 되었거늘
 물가의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누나.
 바위 위에 핀 산꽃은 수놓은 비단 병풍이요,
 여울 가 버들가지 초록 장막 되었거늘
 좋은 시절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19) 삼정승

20) 낚시를 파하고 이리저리 거닐음.

21) 물고기들이 못에서 뛰어 놀음.

22) 굽어 살피고 우러러 쳐다 봄.

正值 花時(정치 회시)²³⁾를 虛度치 밀나 너겨
아희 불너 하는 말슴이
深山 窮谷(심산 궁곡)에 海錯(해착)²⁴⁾이야 보로소나
살진 고사리 香氣(향기)흔 當歸草(당귀초)를
豬脯 鹿脯(저포 녹포)²⁵⁾ 相間(상간)하야
크나큰 細柳筍(세유사)에 洽足(흡족)히 다마두고
鮒魚膾(부어회) 初味(초미)에
訥魚(눌어) 生雉(생치) 서거 구어
빗빋치 드리거든
瓦樽(와준)에 白酒(백주)를 박잔의 가득 부어
흔 잔 쏘 흔 잔 醉(취)토록 먹은 後(후)에
桃花(도화)는 紅雨(홍우)되야 醉面(취면)에 쏠리논듯
苔磯(태기) 너븐 돌애 눅히 베고 누어시니
無懷氏(무회씨) 적 사름인가
葛天氏(갈천씨) 썩 百姓(백성)²⁶⁾인가
羲皇盛時(희황 성시)를 다시 본가 너기로라
이 힘이 뉘 힘고 聖恩(성은)이 아니신가
江湖(강호)에 물너신들 憂君一念(우군일념)이야
어느 刻(각)에 이줄노고
時時(시시)로 머리 드러 北辰(부진)²⁷⁾을 브라보고
남 모르는 눈물을 天一方(천일방)의 디어느다
一生(일생)에 품은 뜻을 비옵느다 하느님아
山平 海渴(산평 해갈)토록
우리 聖主(성주) 萬歲(만세)소서
熙皞 世界(희호 세계)²⁸⁾에
三代 日月(삼대 일월)²⁹⁾ 빗취소서
於千萬年(어천만년)에 兵革(병혁)을 쉬우소서
耕田 鑿井(경적 착정)³⁰⁾에 擊壤歌(격양가)³¹⁾를 불리소서
이 몸은 이 江山風月(강산풍월)에 늘글 주를 모르로라

바로 꽃이 한창일 때 헛되이 안 보내려
아이 불려 하는 말이
깊고 깊은 산골에서 해산물을 맛보겠나.
살찐 고사리에 향기 나는 당귀풀을
저포 녹포 사이에다 쟁여 두었다가
큰 버들 바구니에 흡족하게 담아 두고
붕어로 회를 쳐서 첫 맛을 즐긴 뒤에
누치와 꿩고기를 섞어서 구웠다가
가지가지 들이거든
흙그릇에 막걸리를 박잔에 가득 부어
한 잔 또 한 잔 취하도록 마신 후에
복숭아꽃 붉은 비되어 취한 얼굴에 흠어지고
이끼 깬 넓은 바위 높이 베고 누웠으니
무회씨 때 사름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복희씨 때 태평성대 다시 보면 여기로다.
이 힘이 뉘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강호로 물러난들 임금님 걱정이야
어느 때에 그치겠나.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남 모르는 눈물을 하늘 아래 뿌리도다.
일생에 품은 뜻을 비옵니다, 하느님아.
산이 평평해지고 바다가 마르도록
우리 임금님 만세를 누리소서.
백성들이 화락하니
삼대의 해와 달을 비추어 주소서.
천년만년 전쟁을 쉬게 하소서.
우물 파고 밭을 갈며 격양가를 불게 하소서.
이 몸이 강산풍월에서 늙을 줄을 모르나이다.

23) 바로 꽃이 한창일 때

24) 해산물들

25) 말린 돼지고기, 사슴고기

26) 무회씨, 갈회씨 둘 다 중국 고대의 제왕. 무회씨는 도덕으로 세상을 다스려 백성들이 사욕이 없었다고 하며, 가회씨는 교화를 퍼지 않아도 저절로 교화가 이루어져 태평하였다고 함. 무회씨 갈회씨의 백성을 욕심없고 순박한 사람을 가리킴.

27) 북극성, 여기서는 임금.

28) 백성들이 화락하게 살아가는 세계

29) 중국 하, 은, 주 세 나라 시대의 해와 달

30) 밭을 갈고 우물을 팜.

31)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